**성경본문: 창세기 33장 1-11절**

1. 오늘 본문은 오랜 타향살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년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에 겨워 함께 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었고, 오랫동안 미루었던 화해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 지난 4월 27일 한반도에서도 남북한 정상간에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도 남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적 있었지만, 그렇게 북한 지도자가 분단선을 넘어와 회담을 갖는 건 1953년 분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북을 가르는 분단선 앞에서 양측 지도자는 서로 만나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어 북측 지도자가 먼저 분단선을 넘어 왔고, 이어 즉흥적으로 남측 지도자를 이끌어 북쪽으로 다시 함께 넘어갔다 넘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 뉴스 앵커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지난 65년간 남북을 갈라놓았던 그 분계선이란 것이 그처럼 서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잘 것 없는 선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 화해 그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화해로 가는 길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의 끝에서 과연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화해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화해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과 그의 형들을 화해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고후5:19).

4.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화해를 강요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화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에서와 야곱이 그 순간을 위해 이십 년이나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십 년은 성숙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숙을 위한 인생수업이 어느 정도 마쳐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들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이를 위해 먼저 그들 안에서 화해와 성숙을 위해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루기까지 그 이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셨습니다. 9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11절에서 야곱도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 모습은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서로를 후히 대하고 있습니다.

6.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그 후 이십 년간 그 집 가축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수효가 번성케 하십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는 등 속임수를 일삼습니다. 전에 속임수로 남의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남의 속임수에 자기 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깨달아갑니다. 진정한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31:5b) 즉, 사람이 속임수로 남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 이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그는 자족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7.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셨습니다. 5절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 호칭합니다. 형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핏보면 형의 호의를 얻으려는 처세술 같습니다. 그런데 이십 년 전 그가 형에게서 가로챈 장자의 복이 뭐였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그날,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기를 원하노라”(27:29)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욕먹어가며 쟁취했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8. 야곱이 아직도 덜된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려고 별짓을 다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할 순 없지!” 그렇게 자존심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그후 마음 한켠에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축복도 과연 유효할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복을 주실까, 오히려 벌을 내리시진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도망길에 오른 야곱을 노상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 이처럼 못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그처럼 값없이 주어진 사랑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야곱은 입에 ‘은혜’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는 기도 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32:10a) 지나온 시간 속에 분명 힘들고 억울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처럼 가족을 얻고 재산도 갖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10. 이 은혜의식이 그를 겸손한 행동으로 이끕니다. 형에게 나아가며 그는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힙니다. 물론 형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가 먼저 자신을 ‘내 동생’이라 부를 때까지 그를 ‘형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주’라고 부릅니다. 앞으로의 자기 운명은 형에게 달려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무력함 가운데 형의 처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8b)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서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리없이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또 소리없이 나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나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11. 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셨습니다. 화해로 가는 성숙의 길에서 그가 배워야 했던 마지막 과목은 ‘담대함’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예물을 앞서 보내고, 가족들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뒤, 그는 얍복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 어떤 낯선 존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의 결과 야곱은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지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고,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에는 전에 없던 담대함이 보입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는 비록 다리를 절며 걸었지만 가장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12.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이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에서가 실제 어떤 마음을 먹고 오는 중인지 알지 못함에도 지레 겁먹은 야곱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화해의 여정에서 뒷걸음질치곤 합니다. 그러고보면, 화해의 여정이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낯선 존재, 그 표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대와의 밤새운 씨름과 같은 것이 아닐까? 처음엔 당황스럽고 겁이 나지만, 막상 붙어보면 해볼만한 것… 처음엔 그가 내게 엉겨붙어 마지못해 맞붙지만, 나중엔 오히려 내 편에서 그를 놓아주지 않게 되는 것… 야곱은 그가 밤새 씨름했던 상대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13. 이 하나님 체험이 그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형님과의 만남을 마치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여기게 됩니다. 형님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듯 형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님과의 화해를 이루고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서의 호의에 감격해서 하는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겸손함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 형님의 얼굴을 대면하러 나아갔고, 마침내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나뉘어진 나라가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헤어진 사람들이 굳이 다시 만나야 하는가? 깨어진 관계가 굳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가?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하는가? 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움과 다툼, 상처와 분노, 분리와 대립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화해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